

Venture Radar

벤처기업활성화 방안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18개 부처와 벤처기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마련한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내에 구조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전문위원회는 M&A 관련 정책의 전문적 검토,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 내용 확인 검토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한 기업평가를 유도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주식교환 내용을 중기청이 확인해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 부당한 주식교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지속 유지,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통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의 자금조달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IT특허분쟁 정부가 나선다

디지털콘텐츠나 위성통신기술 등 정보기술(IT) 분야 특허를 획득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외국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정부차원 전략팀이 신설됐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5일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키 위해 김선령 ‘김앤리(KIMS & LEES)’ 법무법인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IT지적재산권 전략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가동된 이 팀은 정통부가 지원하는 정보화혁신기금을 활용해 IT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해주고 분쟁에 함께 대처한다. 또 위피(무선인터넷 플랫폼)분쟁 등 정부차원 표준화 협상이나 해외 연구개발(R&D)센터 유치 협상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정통부 서광현 기술정책과장은 “전략팀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중소기업 전략적 기술개발에 360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지원에 36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수출유망품목, 지역특화품목 등 정부역점사업과 연계해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



한국게임산업협회 출범

NHN 등 국내 20여 개 게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4월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협회는 NHN,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플레너스, 웹젠, 그라비티, 넥슨, 한빛소프트, 소프트맥스, CCR, 써니YNK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부분 참가해 사실상 업계를 대표하는 모임이 됐다. 회장은 NHN, 회장은 NHN 김범수 대표가 맡았다.

협회는 ▲건전 게임이용문화 조성 ▲21세기 성장엔진으로서 게임산업 위상확립 ▲게임 관련 정책대안 제시 ▲해외시장 개척·지원 ▲업계협력 증진을 5대 사업과제로 삼아 활동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게임문화 기반 조성과 지방·중소게임업체 지원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춰 민관협의체 구성과 게임인력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업체 법률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협회는 한국게임산업연합회 등 기존의 게임관련 협회들과도 통합논의를 갖고 외국계 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업계 단일협회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 등급심의를 둘러싼 논란과 중국의 한국산 온라인 게임 규제강화 등 게임업계의 당면과제에 대해 관련당국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